



양양소식

군정방침

I. 신뢰받는 자치행정
 I. 균형있는 지역발전
 I. 매력있는 관광개발
 I. 실속있는 복지실현
 I. 특색있는 문화창달

발행인:양양군수 / 편집인:기획감사실장 / 발행처: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번지 Tel (033)670-2223 Fax(033)672-4242

"희망찬 양양건설 최선"

- 군민이 중심되는 행정·친절한 공직사회 조성 -

제26대 이진호 군수 취임식이 지난 2일 양양군의회 의원들과 속초경찰서 김영석서장, 낙산사 주지 설웅스님을 비롯한 지역인사와 주민, 공무원, 가족 등 각계각층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문화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우리군 민선 3기 출범을 축하하는 행사로 마련된 이날 취임식은 개회식 선언과 이진호 군수의 약력소개, 취임선서에 이은 취임사, 대통령 및 행정부 장관 축하메세지 낭독이 진행됐으며, 특히 군수 취임 축하하는 시조낭독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이진호 군수는 이날 취임사에서 “그 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짐한 각오들과 오늘 취임의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한채 양양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군정을 이끌겠다”고 피력했다.신임 이진호군수는 “지난 95년 실시된 민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주민이 행정의 중심으로 이끌고 국가의 경쟁력을 한차원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며 “지방자치의 경쟁력과 장점이 양양군정 전반에 고루 반영되도록 주민과 함께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이진호 군수는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긍정적인 부분과는 반대로 지역이기주의 심화와 불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지방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상존, 선심성 전시행정 등의 부정적 문제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앞으로 지방의 세계화와 행정의 경영화, 정보화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군민이 중심이 되고 주민을 위한 행정과 친절서비스가 정착된 공직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민선 3기를 정점으로 인사편중과 이권개입 등 각종 행정불신이 일소되는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취임과 동시에 최고의 친절 행정서비스를 강조해온 이진호 군수는 “지방화 시대가 정착된 만큼 중앙정부나 쳐다보고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곳감 빼먹는 행정으로 더 이상 잘살고 발전된 양양을 만들 수 없다”며 “변화의 바람속에 관광객이 넘쳐나는 희망찬 양양을 만드는데 열정과 혼신의 힘을 바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의정소식

제4대 양양군의회 개원

- 신임의장-박상현, 부의장 김우섭 선출 -

제4대째를 맞는 우리군의회 개원식이 지난 3일 오전 11시30분 의원전원과 지역인사, 공무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됐다.제4대 우리군의회 개원식에 앞서 열린 제93회 임시회에서 의장단 선출관련 투표 결과 재선인 박상현 의원이 신임의장으로, 초선인 김우섭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됐다.이날 개원식은 의원선서 및 신임의장 개회사에 이은 이진호 군수의 축사 등이 이어졌으며, 많은 참가자들이 군의회 개원을 축하하며 거듭나는 의정활동을 당부하는 자리로 펼쳐졌다. 이날 군의회 의장에 선



출된 신임 박상형의장은 “민선 4기 의회의 첫 의장직을 맡게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신임 박상형의장은 특히 “집행부와의 상호보완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을 실현시키겠다”며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민의를 의정에 반영하는 한편 산적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의회가 중심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피력했다.

양양지역 21개 해수욕장 개장

- 8월20일까지 ... 물치 첫개장 -

우리군 관내 21개 해수욕장이 지난 13일 일제히 개장하고, 8월20일까지 피서객을 맞는다.군은 지난 13일 낙산해수욕장에서 이진호 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갖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 피서객들에게 친절하고 청결한 해수욕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올 여름 개장되는 해수욕장은 시범해수욕장 2개소(낙산·하조대), 일반4개소(설악·남애·오산·죽도), 그리고 올해 처음 개장되는 물치를 비롯한 간이해수욕장 15개소 등 총 21개소이다. 개장시간은 가급(낙산, 하조대, 설악, 오산, 남애)의 경우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개장되며, 나급(죽도, 정암, 동호, 잔교, 북분, 지경, 동산, 물치, 동산포, 인구, 갯마을, 남애3, 남애1, 원포, 지경)은 밤 10시, 다급(기사문, 광진)은 밤 8시까지 문을 연다.

군수관사 없애고 자택개방

- 이진호 군수 공약 이행 주목 ... 관사 미화원 휴식공간으로 -
- 양양종합폐기물처리장 사업 재검토 -

이진호 양양군수가 취임 이후 자택에서 출·퇴근하며 군수관사를 집없는 주민이나 환경미화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그동안 약속한 공약사항을 발빠르게 이행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진호군수는 “군수관사를 집없는 주민이나 환경미화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현재 우리집 1층은 그동안 도의원이나 번영회장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수렴하는 공간으로 활용했던 만큼 연속적인 측면에서 이권개입이나 불순한 뜻을 지닌 사람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종전까지 군수관사로 사용해오던 차고 옆 관사건물을 이진호 군수가 밝힌 뜻을 중심으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군수관사는 2층 규모에 연면적 1백32㎡로 지난 80년도에 건축돼 당시 정주시 군수로부터 민선 2기를 이끌어난 오인택 군수에 이르기까지 20여년간 10명의 군수가 사용했으며, 지난 1일 취임한 현 이진호 군수가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따라 현재 빈 건물로 남아있다. 한편 이진호 군수는 이와 함께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양양종합폐기물처리장 사업과 남대천 골재채취 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양양종합폐기물처리장 사업과 관련, 이진호 군수는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민의견 재수렴 이후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남대천 골재채취 사업의 경우, 양양발전을 위해 거시적 시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이들 공약에 대한 향후 추진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열린의회 만들기 화제

- 군의회 의장실 → 회의실, 부의장실 → 민원실로 -

지난 3일 개원과 함께 민선 4기를 시작한 우리군의회가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전격 개방하는 등 ‘열린의회 만들기’를 통해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이미지 높이기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민선 3기 의회에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아온 신임 박상형 의장과 김우섭 부의장의 주도로 이뤄진 의회 개방은 그동안 의장 전용으로 사용되던 의장실을 의원들의 회의실로 사용하는 한편 부의장실은 민원실을 겸한 의원들의 공부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주 부의장실 풋말을 없애고 대신, 민원상담실로 변경해 주민들의 민원창구가 되도록 유도하고 특히 군 의원들이 의정활동 이외의 시간에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겸해 개방했다. 한편 자신들의 사무실을 전격 개방한 박상형 의장과 김우섭 부의장은 다른 의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의원실에서 집무를 보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김우섭 부의장은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이전부터 공감해왔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주민속에 자리하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좋은 목민관이 되소서

- 양양향교 군수 등 당선자 고유제 -



민선 3기를 시작한 신임 이진호 군수 취임에 따른 고유제가 지난 9일 오전 11시 유림과 새로 당선된 도의원, 군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향교에서 올려졌다. 이날 행해진 고유제는 향교제례중 하나로 신임 이진호 군수와 도의원, 지방의원들이 당선을 알리고 지역발전과 화합을 기원하는 전통제례로 진행됐다. 고유제는 과거 조선시대부터 지방관리가 바뀌거나 새롭게 자리를 옮기면 지역 유림들이 가장 좋은 날을 택일해 마을의 안녕과 목민관의 선정을 기원하는 전통제례로 올려진 것이 유례로 우리지역의 경우, 단체장 부임에 따른 고유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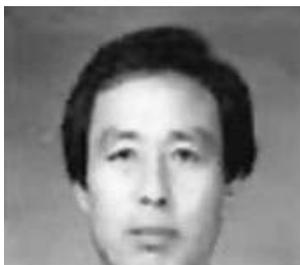
"처음이던 그곳"

- 양양문학회 동인시집 4권 출간 -

우리지역의 문학동인들로 구성돼 활발한 문학활동을 펼치고 있는 양양문학회(회장 박응남)가 지난달 26일 출판기념회를 갖고 시집 4권 ‘처음이던 그곳’을 펴냈다. 모두 24명의 동인이 활동하고 있는 양양문학회는 지난 97년 창립하면서 매년 시집을 펴내는 등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왕성한 문학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양문학회는 이번에 출간한 시집 4권을 통해 지극히 지역적인 소재에서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시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의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순수문학을 통해 등단한 최종한 시인은 ‘문’, ‘산다는 것은’, ‘초설 II’, ‘일출’ 등 4편의 시를 실어 앞으로 활발한 문학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양양문학회 박응남 회장은 책 머리에서 “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기까지 숲한 물길을 트며 때로는 돌 틈에 더러는 늪지에서 꿈을 꾸듯 스미고 용솟음치듯이 회원들 모두가 지난 시간을 함께 걸어왔다”며 “이번 시집 4권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비워가며 따스한 사랑으로 뜻을 함께 해 보았고 아직은 서둘러서 더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번 시집 4권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인 15명의 시와 수필 3작품이 실려있다. <도서출판 영하, 값 6천원>



"양양농업발전 산증인 이상범소장 공로연수"



농업기술센터 이상범소장(59, 사진)이 내년 상반기 명예퇴임을 앞두고 지난 4일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이상범 소장은 현남면 인구리 출신으로 지난 70년 10월 경기도 포천군농촌지도소에서 공직을 시작해 양양군농촌지도소와 정선군농촌지도소, 속초시농촌지도소 기술담당을 거쳐 양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사회지도과장, 농업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월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부임한 이상범 소장은 그동안 낙산배 명품화 사업을 통해 83ha의 배과수원을 조성했으며, 산촌마을의 전작물에 대한 대체작목 개발에 따른 인진쑥 재배기술을 규명, 농가보급에 힘써왔다. 특히 표고, 느타리, 영지버섯 재배를

정착시키는 등 버섯재배를 바탕으로 농가소득 증대의 디딤돌을 마련했고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연계한 화훼단지 7.3ha를 조성, 수출농업의 길을 열었다.또한 기능성 수목 재배기술 규명에 따라 지구자, 산초, 초피, 음나무의 재매면적을 확대하는 등 양양농업을 한단계 발전시키며 이같은 공로로 지난해에는 강원도 최우수 농촌지도기관상을 수상했다.강릉농공고와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졸업했으며, 가족은 부인 이춘자씨(57) 사이에 2남1녀.

"등산 통해 호연지기 배운다"

- 조산초등 도내 국립공원 등반 대장정 -

등산방법의 체험학습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을 익히기 위한 강원도내 국립공원 등반 대장정이 조산초등학교 학생들에 의해 실시돼 화제다.조산초등학교는 지난 2000년부터 학내 5~6년생을 대상으로 설악산 대청봉을 비롯해 오대산 비로봉, 치악산, 태백산, 천제단 등 도내 4개 국(도)립공원 등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조산초교는 등반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숲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한편 공동체 의식과 극기심 함양 등 자긍심과 자부심을 키우고 있다.초등생을 대상으로는 처음 실시된 도내 국립공원 등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0년 가을.조산초교 학생들은 설악산 대청봉을 시작으로 2001년 봄 오대산 비로봉, 가을에는 태백산 천제단 정상에 오르는 등 단 1명의 낙오도 없이 등반 대장정에 성공했다.또한 올해는 지난 6월 치악산 비로봉 정상에 올랐으며, 오는 가을 학기에는 설악산 대청봉을 마지막 코스로 도내 4개 국(도)립공원 정상 등반에 나설 예정이다.조산초등학교는 등반에 따른 학생들의 체력유지와 목표의식 함양을 위해 준비단계, 실행단계, 정리단계 등 3단계로 나눠 실행계획을 실시하면서 체계적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특히 체력기르기, 숲 체험 학습 프로그램 적용, 인터넷을 통한 사전 정보 조사하기 준비단계는 학생들의 학습열을 높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긍정적 교육효과를 가져왔다.조산초교 학생들의 경우, 등반 학습체험 대장정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려는 공동체 의식과 극기심이 함양됐으며, 과정과 활동, 체험중심의 학습방법을 익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피볼락 15만5천미 방류

- 관내 어촌계 연안일대-

우리군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관내 어촌계 연안일대에 우럭새끼(조피볼락) 15만5천미를 방류했다.군에 따르면 3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강원도 수산양식시험장에서 생산된 5~7cm급 치어 15만5천미를 연안에 방류하고 정착성 어종의 증진사업을 펼쳤다.이번에 실시된 우럭새끼 방류사업은 그동안 남획된 정착성 어종의 생산증대를 위해 군비 2천2백원을 투입해 펼쳤으며, 이에 따라 활어로 분류되는 우럭의 생산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 보급사업 역점추진

- 관내 보급률 66% ... 전국과 도에 크게 밀돌아 -

우리군은 전국 평균치에 크게 밀도는 상수도 보급률의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내 지역별 상수도 보급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등 상수도 시설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군에 따르면 1일 평균 5백t에 그치고 있는 정수장의 배수능력 증대를 위해 오는 2005년까지 2백억원을 투입, 양양읍 임천리에 배수량 2만8천t 규모의 정수장 사업을 올해안에 착공할 계획이다.고지대에 위치하는 임천리 정수장이 완공될 경우, 관내 지역상수도 보급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지난해 6월까지 양양읍 임천리~거마리 3.2km군간에 대한 송수관로 시설을 마무리한 군은 올해 2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강천지구(거마리~물치리~물갈리)에 대한 상수도 공급시설사업을 추진한다.또한 오는 2005년 완공될 임천리 배수장과 연계해 내년에 서면과 손양면, 현북면에 대한 송수관로 사업을 착공, 2006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현남면은 2007년 사업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우리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평균 66%로 전국평균 87%와 강원도의 80%대에 비해 크게 밀돌고 있는 실정이다.

현북 자치센터 9월 오픈 전망

군이 시범 추진중인 현북면 주민자치센터가 오는 9월 문을 열고 본격적인 주민자치시대를 맞을 전망이다.군은 이를 위해 지난 11일 부군수실에서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 보고회를 갖고 계획안 검토를 실시했다.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체험·문화생활·문화정보·문화창작 공간 등 4가지 생활

공간 개념으로 마련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과 문서작성을 위한 인터넷부스와 안내데스크, CD부스를 설치하고 휴게공간, 비디오부스, 체력단련실, 농업정보상담실 등 재충전 개념의 공간을 갖춘다. 또한 주민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온열치료기, 영화상영, 문화강좌 등 다목적실이 설치 운영돼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 자치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가축시장 개방

- 지난 19일 월리 ... 48두 매매 -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지난 5월4일부터 잠정 중단된 우리지역 가축시장(우시장)이 19일 개장과 동시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속초·양양축협이 운영하는 우리지역 가축시장은 양양읍 월리에 위치해 있으며, 개장 첫날인 지난 19일 한우 61두가 출하돼 이 가운데 48두의 매매가 이뤄졌다.설악권 지역중 유일한 가축시장으로 전통적인 색채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그동안 농업인들의 애환과 삶의 진솔함이 묻어나는 볼거리로 새벽시장을 열기도 했다.월리 가축시장이 80여일 만에 새롭게 개방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한우 매매가 한층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전통적인 볼거리 장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속초·양양축협 관계자는 "구제역 파동으로 일시 중단된 가축시장이 개방되면서 축산농가들의 모습이 한층 활력에 차 보인다"며 "철저한 위생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지마을 도로개설

- 서면 용소골 등 3개소 ... 2.47km 구간 -

우리군은 내년까지 9억5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서면과 현남면 등 오지마을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군은 서면 공수전리 용소골 진입로 0.97km, 현남면 임호정리 지경리 연결부분 0.5km, 현남면 죽정자리 1km 등 오지마을 2.47km에 대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특히 마을관리 휴양지로 널리 알려진 서면 공수전리 용소골의 경우, 현재 10 농가가 거주하고 있으나 장마철이면 일반 승용차 진입이 어려울 정도의 오지로 일명 '민속촌'으로 불리는 등 주민불편이 잇달아 제기된 곳이다.관내 오지마을 3개소 도로개설 추진사업과 관련, 현남면 임호정리와 죽정자리 구간은 연내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며 용소골은 내년 3월 완료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서면 선림원 불교사 가치 커

- 지난 4일 학술대회 ... "지속적 발굴지원 필요" -



신라시대 불교사원의 대표적 사찰인 서면 선림원의 사상과 불교미술에 관한 학술대회가 이진호 군수와 낙산사 주지 설웅스님을 비롯해 국내 불교학계의 권위를 자랑하는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 고경재 문화원장 등 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오후 1시30분 낙산비치호텔에서 열려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국내 최초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불교학계 권위자들과 동국대 불교학과 학생 30여명이 참석해 지난 17년간의 발굴과정에 따른 학술적 성과와 불교미술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한 낙산사 주지 설웅스님은 대회사에서 "신라시대 불교사에 가장 빛나는 불교사원지인 선림원에 대해 이곳 낙산사에서 학자들과 귀빈들을 모시고 학술대회를 열게돼 감회가 깊다"고 피력했다.또한 "현재 폐허가 된 선림원지는 신라시대 원형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3층 석탑, 석등, 탑비, 승탑 등 신라 최고의 석조 미술품들이 유존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며 "동국대학교와 한국미술사연구소에 의해 그동안 발굴조사된 학술적 평가를 토대로 미진한 발굴을 마무리짓고 선림원에 대한 한국불교사에서의 위상과 의의를 밝혀주시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한국 불교계에 있어 화엄종과 선종의 관계를 명쾌히 밝힐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남아있는 선림원지는 현지 발굴이 시작된지 17년이 지났으나 지속적인 발굴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 종합적인 학술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선림원지의 경우, 발굴 당시 신라시대 원형 그대로 보존돼 불교미술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 국내 불교사의 커다란 분기점을 마련한 전통적 사찰로 인식돼 왔으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발굴지원과 체계적 복원문제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피서철 배낭시 인기절정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양양관내 어항에서 운영되는 배낚시가 관광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2/4분기 낚시 어선 운영실적이 전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관내에서 모두 1백 20척의 낚시배 운영에 따라 7천6백38명이 어선을 이용한 배낚시를 즐긴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배낚시 운영에 따른 두 달간의 어가소득 총액은 1억4천2백여만원에 달해 어가당 평균 1백91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이 가운데 최고는 1천1백96만원, 최저 5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여름 피서철을 맞아 배낚시의 어가소득 증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지역은 해수욕장이 밀집된 남해항에서 배낚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손양면 수산항과 강현면 설악해수욕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제1회 백사장 마라톤 대회

- 8월3일 오후 4시, 하조대 해수욕장-

군은 마라톤 붐을 조성하고 여름 이벤트 다양화를 위해 8월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하조대 백사장을 달리는 2km 구간 왕복 4km의 제1회 백사장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특히 백사장 마라톤과 함께 모래조각품 만들기 및 전시회를 갖고 바디페인팅, 나의 모래성 쌓기 등 다채로운 피서철 이벤트도 펼칠 계획이다.군은 마라톤 인구의 저변확대와 관광상품으로의 개발을 위해 지난해 송이길 달리기, 연어 소상길 달리기 등을 개최해 마라톤 매니아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여름 백사장 마라톤 개최가 성공할 경우, 3·8선 달리기, 인제-한계령-양양구간을 잇는 재넘어 달리기 등 양양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라톤 코스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리군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시험개발에 성공한 마라톤 코스개발이 이번 백사장 마라톤 대회를 계기로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여름속의 겨울" - 황이리 얼음골을 아시나요-

삼복 더위에도 얼음이 어는 여름속의 겨울, 얼음골. 그동안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얼음골은 밀양, 의성, 단양 등. 얼음골은 낮은 온도에서 포화상태에 이른 공기가 갑자기 높고 건조한 대기를 만날 때 급격히 팽창하면서 주위의 온도를 빼앗아감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산간오지 서면 황이리, 옛날 화전민촌이던 이곳은 미천골 자연휴양림과 밀봉원이 있고 옛 신라 수도승들의 요람이었던 선림원 터가 있는 산이 높고 물이 깊은 곳. 얼음골은 황이리 계곡에서 1.3km가량 떨어진 해발 700m 야산에 위치해 있다. 굴 이랄것도 없는, 멧돼지 한마리 정도 겨우 들어갈 만한 공간에서 마치 동력장치로 송풍하듯 찬바람이 뿜어져 나온다. 저 안쪽으로 고드름이 얼어 있다. 주변에 작은 구멍 2개가 더 있는데 역시 안쪽에는 고드름이 얼어 있고 한기는 오히려 더 세게 뿜어져 나온다. 이 곳 주민들에 따르면 8월까지 얼음이 남아 있다고 한다.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겨울은 오히려 더 훈훈하다. 여름에 비가 오면 이곳 주변은 운무에 둘러싸인다.한참을 있으면 주변 일대가 서늘한 것이 소름이 돋을 지경인데, 이 여름, 정말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얼음골 2/3지점부터는 길이 없어져 초행인 사람은 등산이 어렵고 주민의 안내를 받아야 가능하다.

비경 "백암폭포" / 태고적 폭포수

작열하는 태양아래 짝짝 늘어지는 요즘, 비류직하하는 물줄기를 노노라면 바라보는 자체로 더위가 싹 가실듯 싶다. 우리나라에 폭포라 칭하는 곳은 많겠으나 폭포도 폭포 나름. 수십미터의 장엄한 낙하 물쇼를 연출해야 폭포라 할만 하지 않은가. 백암폭포는 서면 오색리 백암마을에 있다. 설악산 대청봉능선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데 관광객은 물론이거니와 이곳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한다. 기껏해야 이름이나 들어 봤을 정도일게다.일반인들이 잘 찾지 않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소록길이 녹음으로 덮여 몇번 다녀온 사람도 길을 잘못 들기 십상이다. 백암마을에 차를 세우고 제일 끝에 위치한 농가 뒤 산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오른다. 계곡을 쭉 따라 지그재그로 오르기 때문에 물가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 발도 담가보고 싸가지고 온 음식도 먹고 쉬엄쉬엄 올라가는게 좋다. 늦어봐야 1시간 거리기 때문에 애들이 있는 가족단위 등산 코스로도 적당하다. 나무들이 너무 울창하여 햇빛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등산길 내내 서늘한 기분으로 오를 수 있고 계곡주변의 푸르름이 보기좋아 지루하지 않을듯 하다. 근처에 다다르면 썩-아 물줄기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백암폭포의 비경은 30미터 가량의 높이에서 직하하는 시원스런 물줄기와 함께 폭포 하단이 “ㄴ”자로 꺾여져 바위 밑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바위 밑에 앉아 전방을 바라다보면 시원함은 물론이거니와 발 앞으로 떨어져 흰 갈기로 날리는 물줄기가 신비롭다

현남지역 해수욕장 "천국"

관내 21개 해수욕장이 지난 13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개 해수욕장이 현남면에 집중돼 설악권에서 단일지역으로는 가장 많은 해수욕장을 보유, 해수욕장 천국으로 불리며 관심을 끌고 있다.바다와 산을 모두 접하고 있는 현남면은 광진리 남해해수욕장, 두창시변리 죽도해수욕장 등 대부분의 마을이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이 가운데 인구리와 동산, 남해 3리는 2개 이상의 간이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정도이다.마을

단위로 운영되는 이곳 현남지역 해수욕장은 소규모로 열악한 시설과 백사장 개방시간도 밤 10시까지 제한되는 등 규제가 있으나 갯마을과 원포, 지경리해수욕장은 오히려 조용하고 깨끗한 특성으로 가족단위 피서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갯마을 해수욕장은 저렴한 민박요금을 준수하고 피서객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오징어, 양미리축제 등을 개최, 가구당 7백~8백만원에 이르는 짝잡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

물치해수욕장 첫개장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올해 처음 선을 보이는 강현면 물치해수욕장이 지난 10일 이진호 군수, 김주혁 군의원 등 관계자와 마을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왕제를 갖고 개장에 들어갔다. 관내 21개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연 물치해수욕장은 면적 1만㎡, 해안선 2백m, 수용인원 1천여명의 간이해수욕장으로 도로접근이 용이하고 물치회센터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가족단위 피서객들의 발길을 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속초와 지척에 불과해 속초를 찾은 피서객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내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개장을 앞두고 모래사장 정비 등 발빠른 사전정지 작업을 펼쳐 피서객 맞이에 만전을 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치당구장을 운영하는 손종학씨(32)는 “그동안 회센터만으로 관광객 유치에 버거웠던 물치가 이번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관광지다운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세련된 해수욕장 문화 정착을 위해 바가지 요금 등 그동안 고질적으로 대두된 피서철 불성사나운 행태들을 일소하고 깨끗하고 합리적인 해수욕장 운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솔잎혹파리 방제 성공

- 양양군 12년간 1백억원 투입 ... 재발방지 역점 -

우리지역의 천혜송림을 위협해온 솔잎혹파리가 지난 90년부터 시작된 방제사업으로 박멸단계에 접어드는 등 완전퇴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87년 서면 송천리에서 발생한 15ha의 솔잎혹파리 피해발생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소나무가 대부분인 관내 사유림 1만6천ha중 50%이상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1천ha는 고사직전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 90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방제사업으로 올해 들어 관내 전지역에서 솔잎혹파리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7월 현재 감염지역이 대부분 사라지고 이전의 모습이 살아나고 있다. 군은 지난 90년부터 12년간 관내 전체 산림 5만2천여ha중 3만2천여ha의 산림에 1백억원의 예산과 연인원 10만명을 투입해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벌여왔다. 군이 펼치는 활발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천혜송림에서 연간 50t의 송이생산으로 50억원이상의 농가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양양송이를 연계한 관광이미지 홍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산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2년간 솔잎혹파리 감염지역으로 휴역을 치렀으나 성공적 방제사업 결과 송림 청정지역으로 회복된 우리군은 지난 5월부터 1만여평의 인력과 5억5천만원을 들여 3천여ha의 소나무숲에 수간주사를 완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산림조성 관리에 역점을 기울일 계획이다.

물! 소중한 생명자원

-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

UN에서는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였습니다. 물 부족 국가군에 해당하는 나라는 8개국에 불과합니다. 한방울의 물이라도 아껴써야 합니다! 우리군의 수도요금은 생산원가 9백41원의 65%(6백18원)에 불과합니다. 수도물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물이 그냥 낭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물을 10%만 절약하여도 오염물질인 하수발생량도 그만큼 줄어 우리의 강과 바다가 더욱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실천요령으로 수도물 아껴쓰기를 생활화 합시다. ◆ 양치질 할 때는 반드시 컵에 물을 받아서 사용합시다. ◆ 음식그릇의 기름기를 휴지 등으로 닦아낸 다음 세척합시다. ◆ 세탁물은 함께 모아서 세탁하고 합성세제 사용량을 줄입시다. ☞ 가정생활용수의 50%가 화장실과 목욕탕에서 낭비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화장실 변기에 벽돌을 넣거나 절수형으로 교체합시다. ◆ 샤워 할 때 비누칠하는 동안은 수도꼭지를 잠급시다. ◆ 수도꼭지에 절수장치를 하거나 절수형 샤워기를 사용합시다. ※ 기타 절수에 대한 문의는 양양군청 지역개발과 ☎670-2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의 농업관측

□ 7월 무배추 출하량은 작년보다 20% 많을 전망

7월에 출하 될 고랭지무 배추의 출하량은 작년보다 20%이상 많아 7월 무배추 도매 가격은 가뭄으로 폭등했던 작년 보다는 크게 낮을 전망. 그러나 평년 가격에 비해 배추는 낮은 반면 무는 높을 전망. 가을무 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

다 6% 내외 감소

□ 고추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6% 적은 증가할 듯

국내 가격이 하락 추세임에도 고추 수입량은 작년에 비해 51% 많음. 공급량은 작년 동기 보다 2% 적지만 소비가 3% 감소하여 재고량은 13% 많은 수준. 따라서 7월 가격은 6월에 비해 약세 전망. 금년 국내 고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6% 증가하고, 중국 산동성의 재배면적은 10% 증가 전망

□ 7월 수미 출마량은 작년보다 8% 적은 수준

노지봄감자(수미)의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많아 전체 생산량은 작년보다 19% 증가한 40만톤 내외로 추정. 7월 출하 예정량이 작년보다 8% 적어 6월에 비해 가격 상승 전망. 고랭지감자 재배 면적은 작년과 비슷하고, 가을 감자 재배의향 면적은 12% 감소

농/사/정/보

1. 벼농사 관리

6월말 이후 고온 건조한 날씨로 잎도열병 발생이 둔화상태이나, 지역적으로 질소비료를 많이 주어 벼 체질이 연약한 상태에서 장마가 오면 병반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잎도열병을 막지 못하면 목도열병으로 연결되어 많은 수량이 감소됩니다.

○ 잎도열병 -발생전망:질소비료 많이 준 논을 중심 다발생 예상 -발생시기:6.27~7.20 -발생전망:전필지 1회방제 반드시 실천 ※발생이 심한 필지:트리졸수화제(2,000배)+히 노산유제(500배 액)혼용살포

○ 목도열병 -약종별 효과적인 방제시기 ·침투성수화제(범, 디데이, 가야밤):이삭패기 7일전~직전 ·침투성입제(후치왕, 키타진):이삭패기 30~7일전 까지 ·일반유제(히노산, 나도산, 후치왕):벼 이삭이 2~3개 보일때 1차 방제, 5~7일후 2차 방제 ※1차 방제후 5~7일경 보완방제를 꼭 실시합니다.

○ 잎집무늬마름병은 약효가 오래 지속되는 농약(몬세렌, 안빌)으로 반드시 목도열병과 동시 방제합니다.

○ 멸구류, 흑명나방 예방을 위해 살충제를 섞어 칩시다.

2. 여름철 퇴비증산

○ 우리지역은 오랫동안 화학비료를 과다사용하여 토양의 지력약화로 병충해의 발생이 많고, 냉해 및 가뭄의 피해를 받기 쉽습니다. 여름철 퇴비를 생산하여 지력을 증진 하고 환경을 보호합니다. -생산목표:29천톤(10a당 논 900kg, 밭 2,000kg) -생산목표:7~9월 -생산요령 ·마을별 공동퇴비장과 농가 퇴비장을 설치하고 ·농로주변과 마을진입로 등 들풀의 퇴비화로 병충해의 서식지 제거 ·신약초, 보리짚 등 15~20cm로 절단, 비닐을 덮어 발효후 사용

3. 장마철 원예. 특용작물 관리

<고추> ○배수불량포장은 배수구정비 철저 ○받침대 보강 쓰러짐 방지 및 쓰러진 포기는 세워 유인하고 복주기○생육 부진포장 요소 0.2%액 또는 4종복비를 5~7일 간격 2~3회 엽면살포 ○예방위주 약제 살포 및 비가 멈춘 틈을 이용, 탄저병, 반점세균병, 담배나방 집중방제○침관수 피해가 심할때는 비닐을 걷어내고 곁흙을 얇게 긁어 줌(고사주는 즉시 제거)

<오이>○비가림하우스 오이 노균병, 덩굴마름병 예방위주 방제- 전용약제:오티바, 가스란, 프롬디/놀란, 안트라콜○하우스 주위 배수구정비 철저○병든잎, 늙은잎 조가재거 통풍관리 철저

<참깨>○배수불량포장은 배수구정비 철저○예방위주 약제살포 및 비가 멈춘틈을 이용 역병, 잎마름 병 방제 철저 -전용액제:리도말, 리도참 / 산도판에이, 푸르겐, 다이센엠-45

<과수>○여름철 전정과 유인 및 받침대 세우기-경쟁지 및 도장지 제거, 주거및 부주지 유인(40~60。) -늘어진 가지는 받침대 세우기○병충해에 강한 앞만들기-목초액(1,000배), 질산칼슘(500배)등 엽면 살포 ○병충해 방제-점무늬낙엽병, 갈색무늬병, 겹무늬썩음병, 탄저병, 흑반 병, 응애 등 증가 예상→정밀예찰을 통한 중점방제

우리마을 유래<28> 서면 용소리 - 마을에 용이 등천한 큰 소 있어 -



<마을유래>윗 용소골 하천에 큰 소가 있는데 이 소에서 용이 등천하였다 하여 용소리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독립부락이었던 것이 가구가 점차로 줄면서 공수전리로 편입되었다. 속칭 “용소골”이라고 부른다.□ 검은안골: 영덕리와 의 동남쪽 경계골 이름이다. 음침한 골이라하여 지어진 지명이다.□ 윗용소골: 본동 서남간에 있는 골이름이다.□ 노루목고개: 용소리 전 3번지에 노루목처럼 긴 고개 이름이다. 본동 동남간에 있다.□ 이왕골: 질장군 나들이에 있는 서북간 골이름이다.□ 굴아우소: 마을 동쪽 입구에 있다. 하천 산 밑에 굴이 있다하여 굴아우소이다.□ 소뽕밭골: 마을 입구에 있는데 굴아우소 동남간에 있다.□ 지느름소: 마을 어구에 있고 소뽕밭골 동쪽에 있는 긴 소 이름이다.□ 샘물통계: 마을 앞 남쪽 하천 건너편에 있는 샘골이다.□ 명치골소: 마을에 있는 소 이름이다.□ 작은청골: 마을 남쪽 강 건너편 들 이름이다.□ 귀애다리소: 마을 동북쪽에 있다.□ 명치골: 무초골 남쪽 골 이름이다.□ 삿갓봉: 마을 동남간 강 건너편 산 이름이다. 산봉우리가 삿갓모양이라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도실봉: 마을 서쪽 산 이름이다.□ 성황당소: 성황당이 있는 곳 서쪽 소 이름이다.□ 분대봉: 마을 앞산이다. 성황당소 남쪽에 있는 봉이다.□ 샘물통: 샘물통계에서 올라가는 남쪽산 능선이다.□ 점터양지: 마을 동서간에 있다. 옛날 쇠돌을 녹이던 점터가 있다.□ 노루빠진소: 용소 북쪽 아래소이다. 예날에 노루가 빠져 죽었다한다.□ 탕소: 용소 서쪽 소이다.□ 고바위골: 명치골 서쪽에 있는 골이다.□ 산포밭골: 예날 삼밭에 있었다한다. □ 콩밭말: 윗용소골 동서간 골이다.□ 장버덩골:용소리에서 서쪽 영덕리로 가는 경계지점인데 예전에 상인들이 모여 장을 세우고 물물을 교환하던 곳이다.□ 도롱골: 마을 서쪽에 있다.

법률상담

- 동일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만 19세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책임 여부 -

<문> 乙은 丙·丁의 아들이어서 전문대학 1학년에 재학중인데, 甲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乙은 그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인 丙·丁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乙의 부모인 丙·丁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답> 민법 제753조에서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5조 제1항에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미성년자가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예컨대 친권자인 부모 등)에게 위 규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만 19세 10개월 된 전문대학 1학년 재학중의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1998.6.9.선고, 97다4940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미성년자인 乙의 친권자로서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丙과 丁에게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책임을 물어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유적 탐방

- 낙산사 동종(보물 479호)-

조선 예종 1년(1469)에 그의 아버지인 세조를 위해 낙산사에 보시(布施)한 높이 158cm, 입지름 98cm의 종이다. 종 꼭대기에는 사실적이고 기품 있어 보이는 용 2마리가 서로 등지고 있어 종의 고리역할을 하고 있다. 어깨 부분에는 연꽃잎으로 띠를 둘렀다. 몸통에는 가운데 굵은 3줄을 그어 상·하로 나누고, 위로 보살상 4구를 새겼다. 보살상 사이사이

는 가로로 범자를 4자씩 새기고, 보살상 머리 위로는 16자씩을 새겨 넣었다. 몸통 아래로는 만든 시기와 만들 때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종의 밑 부분에는 너비 9.5cm의 가로줄이 있어, 그 안에 당시에 유행하던 물결무늬를 새겨 넣었다. 큰 종으로는 조각수법이 뚜렷하고 모양이 아름다우며 보존상태가 좋아, 한국 종을 대표하는 걸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잠/깐/만

- 행정상담 위원제도 운영안내 -

○...행정상담위원제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민원 및 고충에 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해 시·군지역 단위로 행정상담위원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행정에 관한 불편사항이나 고충민원 등이 있을 경우 행정상담위원을 통하여 무료로 상담·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우리군 행정상담위원김찬희 : 양양읍 성내리 정아2차아파트 508호 672-8608최종원 : 강현면 강선리 38 671-5166

- 농가도우미 사업 신청안내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해줌으로서 영농중단 방지로 농업생산성 제고 및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2만7천원이며, 국가지원 80%, 자부담(5천4백원)입니다. 지원일수는 30일입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중에 출산(예정)농가가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농림경제과 670-2377>

- 제22회 강원도 농어업인 대상 접수 -

○...강원도와 강원일보사가 주최하는 농어업부문의 최고 권위와 명예를 자랑하는 제22회 '강원도 농어업인 대상' 수상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접수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상부문 : 자립경영, 지역특화, 가공유통, 창의개발, 수출증진, 자영학습·시상금 : 각 부문별 300만원, 상패·참가자격 : 강원도내에 거주하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추천·접수기간 : 7월1일~7월31일·추천·접수기관 : 읍·면사무소(산업개발담당)·문의 : 농림경제과 670-2377